

계림동 다둥이네 9번째 천사가 왔어요

41세 동갑내기 부부 결혼 20년간 6남3녀 출산 “하늘이 주시면 더 낳을 것” 에덴병원 출산비·용품 지원

“출산은 정말 고통스럽지만 아이를 볼 때면 모든 근심,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하늘이 선물을 준다면 기꺼이 받을 생각입니다.”

광주시 동구 계림동에 사는 동갑내기 부부 김애리(여·41)·정성문(41)씨는 동네에서 ‘애국자’로 불린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 8명(5남3녀)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늘이 주신대로 받아들이는’ 이들 부부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9번째 아이를 낳았다.



“성탄절 이보다 더 큰 선물 있나요” 주부 김애리씨가 최근 광주시 북구 두암동 에덴병원에서 9번째 아이를 출산한 뒤 허정 원장 등 의료진으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북구 두암동 에덴병원에서 지난 19일 낮 12시7분께 몸무게 3.2kg의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했다. 병원의 각별한 배려로 자연분만할 수 있었다.

김씨 부부는 아이가 내년 1월에 세상에 나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태명(胎名)을 ‘일월이’라고 지었다.

일월이는 엄마를 빨리 보고 싶었던 듯 예정일보다 2주 빨리 태어났다.

여섯째 아들부터 에덴병원에서 출산한 김씨 부부에게 병원 측도 출산비용 전액 지원과 거저귀·아기옷 등 육아용품 등을 선물로 전달하며 수산을 축하했다.

김씨 부부는 지난 1996년 우연히 서울

리뷰봉제공장에 만나 1년 만에 부부의 연을 맺었다. 급습이 각별한 부부는 결혼한 그 해에 첫아들을 얻었다. 판이는 현재 강원도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다.

김씨는 “첫 아들을 낳은 뒤 둘째, 셋째부터는 ‘아이들은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다”며 웃었다.

남편 정씨는 택배배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가족 10명은 56㎡(17평) 규모 방 두 칸짜리 빌라에 살고 있다.

형편은 넉넉하지 않아도 가족 사랑은 남부럽지 않다.

“우리 가족은 아침시간 화장실을 쓸 때 서로 순번이 정해져 있어요. 가족이 다 모이는 주말에는 전쟁터가 되긴 하지만 웃음은 늘 끊이지 않죠. 힘들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데 오히려 자녀 1~2명을 키우는 것보다 훨씬 수월해요. 언니·오빠들이 터울 진 동생들을 잘 돌보고 있어 육아는 편하게 하고 있어요.”

한편,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지난 2015년 43만8400명보다 7.3%(3만2100명) 감소했다. 가임기 여성 1명(15~49세)이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합계출산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는 1.17명으로 서울(0.94명), 부산(1.10명), 인천(1.14명)에 이어 4번째로 낮다. 전국 합계출산율도 평균 1.29명에 머무르고 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 보험사기 한방병원 무더기 적발

19곳 초과병상 5680개 나이롱 환자 유지

불법으로 ‘나이롱 환자’를 유지해 수익을 올린 광주지역 한방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광주 지역의 한방병원 142곳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여 혐의가 드러난 19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한방병원은 보건당국이 허가한 병상을 초과해 환자를 유치하고, 이들이 보험금을 타내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한방병원 입장에선 병상을 따로 들여놓지도 않고 환자를 받아 매출을 올리고, 환자는 실제로 입원·치료를 하지 않고도 돈을 챙기는 수법이다.

이번에 적발된 19개 한방병원은 초과병상이 5680개에 달했다. 이런 초과병상을 579일간 운영하면서 나이롱 환자, 서류상으론만 존재하는 ‘페이퍼 환자’를 유지했다.

A 한방병원은 단속결과, 서류와 달리 환자 대다수가 병실에 없어 침대가 텅텅 비어 있었다.

B 한방병원은 일가족이 자녀 방학을 이용해 허위 입원했다가 들켰다. 환자들은 금요일에 집에 가서 가족과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병원으로 돌아오곤 했다.

환자들이 호소한 증세는 대부분 열과, 긴장, 복통, 미끄러짐 등이었다. 사실상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질환인데도, 병원 서류에는 평균 6.9일 입원한 것으로 돼 있었다.

광주·전남·전북지역에 사는 환자들은 한방병원을 드나들면서 보험금 37억3000만원을 받았다. 입원급여, 일당, 실손보험금 등 입원 관련 보험금이 91.4%를 차지했다. 진단, 치료, 간병, 요양 등 실제 치료로 나간 보험금은 미미했다.

광주교육청 내년부터 학생자치회 지원

학교표준운영비 5% 늘려 0.5% 의무 편성

광주 지역 학교 운영비의 0.5% 이상이 학생자치회 운영비로 지원된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광주시교육청은 20일 광주시교육연구회 대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 주요업무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내년에 가장 집중해 추진하는 과제로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를 내세웠다.

우선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학교표준운영비를 올해보다 5%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표준운영비는 인건비·급식비 등을 제외한 공공요금·교육활동 경비·기본 시설 유지비 등 각급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공동 지원 예산이다.

또 학교표준운영비의 0.5% 이상을 학

생자치회 운영비 예산으로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했다.

학생자치회는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청의 교육지표인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5대 주요 시책과 3대 역점 과제를 중심으로 내년 사업을 설명했다.

5대 주요 시책은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 실현, 스스로 익히고 함께 찾는 배움 중심교육 강화, 꿈과 적성을 키워가는 진로교육 추진,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 복지 확대, 소통과 참여로 신뢰받는 정립 행정 구현 등이다.

3대 역점 과제로는 학교 문화 혁신 정착·안전한 학교 실현·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등을 제시했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7 해질 09:33
해짐 17:24 달짐 20:03

겨울 햇살
저기압의 영향에서 벗어나 대체로 맑아 지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2/7	보성	맑음	-5/6
목포	맑음	-1/6	순천	맑음	-2/8
여수	맑음	0/8	영광	맑음	-4/5
나주	맑음	-6/6	진도	맑음	-1/7
완도	맑음	1/8	전주	맑음	-2/5
구례	맑음	-4/6	군산	맑음	-4/5
강남	맑음	-4/7	남원	맑음	-4/6
해남	맑음	-3/7	축산도	맑음	4/7
장성	맑음	-4/5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0
	면바다	북서~북	1.0~2.5	북서~북	1.0~2.0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면바다(동)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서부	면바다(서)	북서~북	1.0~2.0	북서~북	1.0~1.5

◇생활지수

뇌졸중	높음
감기	높음
미세먼지	보통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8:15	03:30
여수	21:31	16:13
	04:17	10:56
	17:02	22:53

◇주간 날씨

22(금)	23(토)	24(일)	25(월)	26(화)	27(수)	28(목)
☀	☁	☁	☀	☀	☀	☀
-2/9	0/11	5/10	-1/4	-3/5	-3/5	-2/6

초중생 10명 중 1명은 척추측만증

여학생 발병률 2배

광주·전남을 포함한 전국 초·중생 10명 중 1명꼴로 허리가 휘는 척추측만증을 앓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 질환은 여학생의 유병률이 남학생보다 2배 가량 많은 특징을 보였다.

고려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서승우 교수팀은 지난해 전국 초중생 7만3243명(남 3만7409명·여 3만5834명)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검사를 한 결과, 남학생의 7.55%(2825명), 여학생의 13.28%(4760명)가 각각 허리가 5도 이상 휘어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척추측만증은 허리가 C자 또는 S자 모양 등으로 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 질환을 방치하면 양쪽 어깨선 높이에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등이 튀어나온다. 심한 경우 갈비뼈가 골반을 압박하는 통증을 생기고 폐나 복부의 장기를 압박해 심폐기능 이상, 소화기능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환자의 85%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

서승우 교수는 “여학생에게 척추측만증이 많은 건 여성호르몬의 영향으로 관절을 잡아주는 인대와 근육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약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무지외반증, 오자형 다리처럼 관절이 비틀어지는 질환이 여성에게 더 많은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척추측만증은 허리가 C자 또는 S자 모양 등으로 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 질환을 방치하면 양쪽 어깨선 높이에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등이 튀어나온다. 심한 경우 갈비뼈가 골반을 압박하는 통증을 생기고 폐나 복부의 장기를 압박해 심폐기능 이상, 소화기능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환자의 85%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

서승우 교수는 “여학생에게 척추측만증이 많은 건 여성호르몬의 영향으로 관절을 잡아주는 인대와 근육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약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무지외반증, 오자형 다리처럼 관절이 비틀어지는 질환이 여성에게 더 많은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광주·전남 최고 이슈 ‘도시공원 민간 개발’

환경연합 10대 뉴스 발표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이 20일 ‘올해의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를 발표했다.

환경연합은 올해의 주요 환경사건으로 도시공원 민간 개발을 첫손에 꼽았다. 오는 2020년 7월까지 도시공원이 해제되며 광주 대표공원인 중앙·일곡·중외공원 등이 민간공원 대상지에 포함됐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자연 훼손

과 도심 녹지대 감소를 우려해 민간공원 개발을 적극 반대했다.

영상강 승춘보·축산보 수문 개방도 10대 뉴스에 포함됐다.

올해 4호기 적남건설 철만 구멍과 콘크리트 부실시공, 증기발전기에서 길이 11cm 이물질이 발견된 한빛원전, 여수산단 누출·폭발·화재사고도 환경뉴스로 꼽혔다.

엘로우 시티
장성군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땃장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물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

장성잔디
장성잔디항토사업단
061.393.8981